

# 주체의 자기변형 가능성을 묻다: 푸코의 ‘자기 배려’ 개념으로 J. M 쿣시의 『마이클 K의 삶과 시대』 읽기\*

오 은 영

단독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 생명 권력, 침묵, 단식, 윤리 등의 키워드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온 쿣시의 소설 『마이클 K의 삶과 시대』를 푸코의 ‘자기 배려’라는 개념을 통해 읽어보려는 시도이다. 푸코적 의미의 ‘자기 배려’는 한마디로 주체의 자기변형 가능성이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구절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자기 배려’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푸코는 자기 배려의 철학이 사라지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자기 인식의 문제가 철학을 지배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다. 푸코의 개념이 고대 그리스의 자유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쿣시 소설의 주인공인 유색인 하위주체의 현실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푸코가 이 개념을 통해 주체의 자기변형이 서양철학 담론에서 점점 사라지는 이유를 계보학적으로 탐구하는 지점이다. 이는 근현대 철학 담론에서 주체에 대한 논의가 추상화되거나,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에서 주체는 사라지고 ‘타자’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인 지형을 구성하는 것과 연결된다. 계급과 인종적

---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차이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개념과 쿣시 소설을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은 ‘주체의 변형’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논문의 2장은 푸코의 개념을 설명하고, 3장은 언어와 자의식의 틀 속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군의관과 비루한 몸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마이클 사이의 대립에 초점을 맞춘다. 마이클은 케이프타운에 사는 평범한 도시인에서 카루 지역으로의 이동을 통해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마이클이 사회적 타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보다, 침묵과 땅을 가꾸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기존의 근대적 주체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군의관과 달리, 마이클의 주체로서의 변화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가능한지, 이러한 주체의 변화가 어떤 윤리적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다.

**주제어:** 『마이클 K의 삶과 시대』, 푸코의 ‘자기 배려’, 자유의 수행, 주체의 자기 변형, 무위

## 1. 들어가며

쿣시(J. M. Coetzee)가 2014년까지 발표한 13권의 소설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는 것은 6권이고, 그중에서도 『마이클 K의 삶과 시대』(*Life & Times of Michael K*, 1983)는 ‘예외적으로’ 하위주체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쿣시의 소설들을 번역해 온 왕은철은 쿣시가 『마이클 K』를 제외하고 남아공을 배경으로 한 다른 소설들에서 하위주체에게 목소리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를 “하위주체나 타자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될 소지를 차단하고 싶어서”(145)라고 설명한다. 쿣시의 이러한 엄격함은 남아공에서 백인 남성으로서의 특권을 알게 모르게 누려온 작가가 인종, 계급, 젠더에 따라 타자로 규정되는 인물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자기 성찰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타자를 주인공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쿣시가 느꼈던 부담과 예민함은 이글튼(Terry Eagleton)이 『이론 이

후』(After Theory, 2003)에서 자못 신랄하게 표현했던 “타자 숭배”(the cult of the Other 21)와 통하는 바가 있다. 이 표현을 통해 이글튼은 20세기 후반을 풍미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 이론가들이 ‘타자’라는 단어를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해왔던 경향을 비판한다. “규범, 통일성, 합의에 반대하는 포스트모던한 편견은 정치적으로 파국적”(15-6)이고 “몹시 어리석다”(16)는 이글튼의 비판은 포스트모던 이론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론 자체에 함몰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가령, 이글튼은 “오늘날 문화이론에서 급진주의의 최신 유행으로 통용되는 것이 바로 안정된 정체성의 해체”이지만 “사회적으로 내쳐지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불안정성이 ‘전복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라고 일갈한다(16). 이글튼이 자족적인 언어의 틀에 갇힌 문화이론을 비판한 것은 그 이론들이 추상화되어 점점 더 현실과 유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실과 이론은 같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론의 추상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20세기 문화이론의 경우 현실과의 유리가 너무 심해서 “서구적 나르시시즘”(6)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글튼의 판단인 듯하다. 이렇듯 20세기 후반을 풍미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문화연구자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사용했던 단어가 ‘타자’일 것이다. 물론 주체와 타자는 상호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타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강조되다 보면 주체의 역할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특권적인 주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주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다뤄지다 보면 주체인 ‘나’의 역할과 변화는 오히려 슬그머니 사라지게 된다.

20세기 후반 영문학 분야의 이론을 주도했던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모두가 ‘타자’에 몰두해 있을 때 ‘주체’의 문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한 이가 푸코(Michel Foucault)이다. 그는 고고학과 계보학의 방법론으로 평생 지식, 권력, 성, 통치 등을 연구의 키워드로 삼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자기’라는 주체의 실천행위, 변형, 윤리 등의 문제를 화두로 삼는다. 주체의 자기변형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푸코는 ‘자기 배려’(epimeleia heautou,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투)라 명명한다.<sup>1)</sup> ‘자기 배려’는 상식적으

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지만, 푸코는 이를 고대 그리스 문헌들을 계보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매우 다른 의미로 제시한다. ‘자기 배려’는 푸코의 후기 저서에 해당하는 『성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 3부인 『자기 배려』(*The Care of the Self*)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개념이다.<sup>2)</sup> 『자기 배려』는 『성의 역사』의 시리즈로 출간되었지만, 여기서 푸코의 관심은 성의 역사가 아니라 ‘주체의 역사’이다. 2004년에 출판된 『자기 배려』의 한글 번역본에서 역자들은 『자기 배려』의 핵심 개념과 관련하여 푸코의 사유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1981년과 1982년에 푸코가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책인 『주체의 해석학』(*The Hermeneutics of the Subject*, 2001)의 출판이었다고 말한다(10).<sup>3)</sup> 『자기 배려』와 2001년에 출간된 『주체의 해석학』은 서양철학을 지탱해온 주체의 개념을 해체한다. 『주체의 해석학』을 번역한 심세광은 역자 서문에서 푸코가 ‘자기 배려’ 개념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해석을 통해 재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주체의 해석학』 26)라고 말한다.

푸코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자기 인식의 명제가 ‘자기 배려’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푸코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명제가 주목받고 특권적인 담론이 되면서 왜 ‘자기 배려’의 담론이 사라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자기 배려』에서 푸코의 결론은 자기 인식만으로 주체는 변화할 수 없으며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인식과 더불어 몸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주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열린다. 주체의 ‘자기변형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의 측면에서 푸코의 ‘자기 배려’ 개념은 『마이클 K』의 두 주인공 마이클과 군의관의 대립을 ‘타자’ 담론 위주로 읽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읽어낼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이클 K』에서 2부의 화자로 등장하는 군의관은 지식인 특유의 자의식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즉 마이클이라는 ‘타자’를 구원하는 것이 자기 구원의 가능성과 연결된다고 믿는 군의관의 의식은 이클튼이 비판한 지식인의 ‘타자 숭배’의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마이클 K』의 두 주인공인 마이클과 군의관은 인종과 계급의 측면에서 주체-타자로 구분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본 논문의 초점

은 이러한 사회적 범주의 이분법에 기대기보다 주체의 변형 가능성의 측면에서 두 인물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 생명 권력, 침묵, 단식, 윤리 등의 키워드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온 쿣시의 소설 『마이클 K』를 푸코의 '자기 배려'라는 개념을 통해 읽어보려는 시도이다. 푸코의 개념이 고대 그리스의 자유인이었던 남성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쿣시 소설의 주인공인 유색인 하위주체의 현실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푸코가 이 개념을 통해 주체의 자기변형이 서양철학 담론에서 점점 사라지는 이유를 계보학적으로 탐구하는 지점이다. 이는 근현대 철학 담론에서 주체에 대한 논의가 추상화되거나,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 담론들에서 주체는 사라지고 '타자'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인 지형을 구성하는 것과 연결된다. 계급과 인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개념과 쿣시 소설을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은 '주체의 변형'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논문의 2장은 푸코의 개념을 설명하고, 3장은 언어와 자의식의 틀 속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군의관과 비루한 몸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마이클 사이의 대립에 초점을 맞춘다. 마이클은 케이프타운(Cape Town)에 사는 평범한 도시인에서 카루(Karoo) 지역으로의 이동을 통해 "다른 종류의 사람"(67)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마이클이 사회적 타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기보다, 침묵과 땅을 가꾸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기존의 근대적 주체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그런 면에서 주체의 자기변형을 문제 삼는 푸코의 논의는 쿣시 소설을 읽는 또 다른 관점을 열어줄 것이다. 군의관과 달리, 마이클의 주체로서의 변화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가능한지, 이러한 주체의 변화가 어떤 윤리적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다.

## 2. 푸코의 '자기 배려'와 수행으로서의 자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서양철학에 문외한인 사람도 흔하게 듣는 익

속한 문구다. 그러나 푸코는 고대 그리스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정언과 실천이 언제나 ‘자기 배려’와 연관되어 있고 또 그것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적어도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기원후 5세기경까지 ‘자기 배려’의 원칙이 갖는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다.<sup>4)</sup> 푸코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 배려’의 전통은 진실에 접근할 준비로서 영성을 제기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푸코적 의미에서 영성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거나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 ‘자기변형’ 혹은 ‘자기 배려’를 의미한다. ‘자기 배려’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영성(spiritualité)은 ‘너 자신을 알라’처럼 ‘인식’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체의 변형을 요구한다.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변형을 가하는 탐구,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spiritualité)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식이 아니라 주체, 심지어는 주체의 존재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구성하는 정화, 자기수련, 포기, 시선의 변환, 생활의 변화 등과 같은 탐구, 그리고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이라 부르도록 합니다. . . . 우선 영성은 진실이 당연하게 주체에게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주체는 그 자체로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영성은 전제합니다. 영성은 주체가 주체이고 이리저리한 주체성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정당화되는 단순한 인식 행위를 통해서 진실이 주체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진실에 도달할 권리를 갖기 위해 주체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형하며 이동하고 어느 정도와 한도까지는 현재의 자기 자신과 다르게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진실은 주체의 존재 자체를 내기에 거는 대가로만 주체에게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그 자체로서는 진실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주체의 해석학』 58-9)<sup>5)</sup>

푸코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자기 인식’이 ‘자기 배려’의 한 부분에 속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금욕주의와 데카르트를 거치면서 ‘자기 배려’는 철학사에서 사라지고 대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에 모든 논의가 집중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철학의 모든 물음은 실천과 윤리의 차원과 단절되고 모

든 것이 '인식'의 문제로 귀결된다. 푸코는 『주체의 해석학』에서 근대 이후 “사람들은 왜 자기 배려를 희생시켜 ‘자기 인식’(gnothi seauton)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일까”(55)를 탐구한다. 데카르트 이후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면서 주체와 진실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더욱이 근대 이후 영성이라든가 ‘자기 배려’라는 개념은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급격하게 사라진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에 이르러 영성이 ‘소거’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고대 그리스의 ‘자기 배려’에서 말하는 ‘영성’은 근대 이후의 기독교적 의미와는 매우 다른 실천행위와 자기수련 등을 의미한다. 푸코는 5세기 말에서 17세기까지를 관통하는 기독교의 주요 분쟁은 영성과 과학 간의 분쟁이 아니라 “영성과 신학 간의 분쟁”(『주체의 해석학』 65)이었다고 말한다. 신학에서 인식 주체는 “신에게서 자신의 모델, 완결지점, 최상의 완벽성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신과 신앙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체”를 일치시킨다. 신과 인식 주체의 일치는 결과적으로 “서구의 사유, 특히 철학적 사유를 그 당시까지 항시 그들을 따라다니던 영성의 조건들-그 중 ‘자기 배려’는 가장 보편적 표명이었다-로부터 분리시키고 해방시킵니다”(『주체의 해석학』 65). 신앙을 통해 완벽한 신을 인식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인간 주체는 주체의 변형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자기 배려’는 금욕주의로 흐르는 기독교에서 사라지게 된다. 갈로(Silvio Gallo)는 “철학에서 영성이 제거되는 것”을 “철학의 중심이 자기 수양 대신 지식 추구로 옮겨지는 것”이고 따라서 “진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합리적인 인식의 대상”(696)으로 바뀐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와 타자/대상의 이분법이 서구 인식론의 지배적 틀이 됨과 더불어 주체의 실천과 윤리의 영역이 실종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주체와 타자가 본격적으로 나뉘지기 시작한 데카르트에 이르러, 주체는 더 이상 스스로 변화할 필요가 없어진다. 주체는 주체의 이해에 따라 대상을 이용하고 통제하고 변화시키는 임무를 지닐뿐이다. 이것의 완벽한 문학적 버전이 드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1719)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 크루소는 끝없이 하느님을 찾지만, 그의 진짜 관심은 주위의 물질과 세계를 어떻게 나의 이해에 맞게

가공하고 변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세상의 중심인 인간 주체는 더 이상 수련의 대상도 아니고 변화할 필요도 없다. 이의 또 다른 예는 『마이클 K』에서 군의관의 의식과 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고 괴로워한다는 점에서 군의관은 물론 크루소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군의관은 자기 말과 생각에 ‘구멍’과 ‘균열’이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다. 지식인인 군의관처럼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푸코가 말하는 ‘자기 배려’는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실에 접근하는 대가’로 주체가 치러야 하는 자기변형의 책임이 면제되면서 주체의 ‘윤리’가 사라진다는 데 있다. 플라톤 이후 천년을 지속한 ‘자기 배려’의 전통은 정신과 몸의 구체적인 실천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는 정신의 영역만으로 한정된 자기 인식과 다르다. 주체가 타자/대상과 맺는 관계에 따라 윤리적 실천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행위의 실천이 없는 자기 인식은 자기 환상으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주체의 윤리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자기 배려’에서의 ‘영성’이란 주체와 타자의 통합된 관계이고 동시에 “타자를 위한 자신의 유익성과 자기를 위한 타자의 유익성”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호관계”(『주체의 해석학』 228)의 성격을 지닌다. 나의 구원이 타자의 구원과 맞물려 있어서 둘 사이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푸코는 자신을 배려한다는 것이 배타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님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마이클 K』의 군의관은 타자의 구원이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지만, 주체의 자기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마이클과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다. 군의관과 마이클의 대조적인 모습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주체는 변화하지 않으며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한 푸코의 철학은 다시 확인된다.

마이클이 땅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으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 볼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루소의 유명한 명제—“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은 현실 속에서 억압된 채 살고 있다”(Gallo 699에서 재인용)—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푸코는 본래 자유로운 인간 본성이 현실에서 억압되어 살아간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억압-해방-자유



의 프레임을 부정한다. 푸코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해방의 과정보다는 미시적 행위들을 실천하는 '자유'의 수행'(practices of freedom)을 강조한다. 푸코가 생각한 '자유'의 수행'을 꺾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자유'의 수행은 출구를 찾아내는 일이고, 탈주선(lines of flight)을 만들어내고, 일상의 관계들에서 미시정치적 투자를 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권력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반면, 해방의 과정(processes of liberation)은 특정 사회, 정치적 형태로부터 해방된다 해도 또 다른 형태가 강요되도록 기획된 거대 과정의 거시 정치에 함몰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거시 정치는 해방의 새로운 과정에 필요한 새로운 억압을 지속해서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한 해방의 과정은 자유를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행위의 근간이 되는 거대 담론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자유를 협소한 정치적 의미로 제한하는 권력의 환원론적 시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699)

권력이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음을 강조하는 푸코는 '자유'의 수행'이 일상의 미시적 관계들에 폭넓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본다. 자유'라는 막연한 개념에 '수행'의 차원을 덧붙임으로써 '자기 배려'처럼 구체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구체적인 일상의 행위와 전략으로 기존의 권력 게임으로부터 '탈주'를 감행하고 일상의 관계들에서 미시적으로 '출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수행적 의미의 자유이다. 마이클은 무위와 침묵을 택하고, 집이나 농장이 아닌 산 위의 굴 속에 살면서 땅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자신의 출구를 찾아 나간다.

수행으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푸코의 주장은 카프카(Franz Kafka)의 단편 「학술원 보고」에서 원숭이가 자유에 대한 인간 특유의 환상을 비웃는 장면과 닮아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유에 관해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가장 숭고한 감정으로 여겨지듯, 그에 상응하는 착각 역시 가장 숭고한 감정으로 간주됩니다"(208). 카프카의 단편에서 원숭이는 인간들에게 포획되어 우리에게 갇힌 순간부터 "살기 위해서 반드시 탈출구가 있어야"(210)한다고 생각한다. 원숭이는 "늘, 자유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216) 그게 무엇이든 단 하나라도 '탈출구'가 필요할 뿐

이라고 말한다. 카프카와 푸코는 막연하고 고귀한 감정으로 ‘추상화된’ 자유는 오히려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한다. 김용규는 푸코가 “통치성의 핵심테크놀로지로서 자유와 자유주의를 인식한 것은 폭력이나 규율과 같은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즉 자유를 통해서도 권력 지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권력의 지배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켜주고 있다”(217)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푸코는 권력의 억압과 저항/자유를 이분법적으로 고찰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생각이 유지되어야 권력이 행사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푸코의 성찰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푸코가 말하는 자유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권력의 정교한 통치술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통치를 받지 않을 자유도 항상 그 속에 내재해있기 때문이다. 마이클의 무위와 침묵은, 푸코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통치받지 않을 것인가’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의관은 수용소에 갇힌 자신의 현실을 답답해하며 오늘 하루를 수용소가 아닌 해변에서 일광욕하며 보내는 것이 “행복의 총량”(157)을 늘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충동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의 현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머릿속으로 자유를 낭만화하는 군의관의 모습은 어떠한 환상도 없이 하루하루를 호박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는 마이클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푸코가 말하는 ‘통치받지 않을 자유’와 ‘자유’의 수행’ 사이에서 자유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듯이, 푸코가 사용하는 ‘진실’이란 단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주체의 해석학』에서와 달리 마지막 인터뷰에서 푸코는 ‘진실’이란 단어보다 ‘진실 게임’(game of truth)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푸코는 사망하기 1년 전인 1984년 1월 20일에 「자유’의 수행으로서 자기 배려의 윤리」(“The Ethics of the Care of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한다. 여기서 질문자는 푸코의 초기 저작에서 주요 개념이었던 지식-권력과 후기 저작의 주요 개념인 주체-진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지 묻는다. 이에 대해, 푸코는 “지식-권력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주체와 진실 게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10)였고, “나의 질문은 항상 주체와 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다”(9)고 대답한다. 이 인터뷰에서 푸코는 특히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말하는가, 왜 그것을 말하는가?”(16)의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푸코적 의미의 진실은 ‘참되고 본질적인’의 의미를 지닌 상식적인 의미라기보다 주로 ‘진실 게임’을 말한다. 이때 ‘게임’이란 “진실을 생산하는 일련의 법칙이나 절차”(16)로서, 진실이라 여겨지는 것이 당시 사회의 전체적인 권력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가령, 중세 시대에 광기는 ‘병’으로 진단받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파리에 처음으로 정신병원이 세워진 것은 광기를 의학지식의 권위를 빌어 ‘병’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푸코가 말하는 ‘진실 게임’에 해당하며, 광기를 병으로 진단하고 사회적인 이단이나 낙오자들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과정은 당시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생성과 더불어 유용한 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사회적 필요와 권력의 전체적 지형에 의해 당시에 유효한 진실—광기는 병이고 정신병자는 격리되어야 한다—이 생산되는 것이다. 여기서 푸코적 의미의 진실은 ‘진실 게임’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식’의 문제로 축소되는 게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푸코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사유나 인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와 법 등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내는 방식이었다. 푸코의 사유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자유, 권력, 진실 등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일련의 규정들과 절차들로 구체화함으로써 그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 인터뷰의 마지막 문장에서 푸코는 철학의 비판적인 기능을 소크라테스의 정언명령을 빌어 표현한다. “자기를 배려하세요. 자기를 단련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세요”(20). 즉 푸코는 ‘자기를 단련하는 것’이 주체의 변형을 의미하는 ‘자기 배려’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 수행으로서의 자유를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자유의 구체적인 수행이 결국은 주체와 타자 모두를 배려하는 윤리적인 실천행위인 셈이다.

### 3. 마이클 K의 ‘자기 배려’를 통한 주체의 변형

『마이클 K』의 1부는 마이클이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중병에 걸린 엄마 애나(Anna K)를 수레에 태워 프린스 앨버트(Prince Albert)로 가는 여정과 애나가 죽은 이후 누군가 버리고 간 농장에서 호박을 기르는 이야기로 채워진다. 마이클의 평화로운 농장 생활은 배고픔과 피사기(Visagie)의 손자라는 탈영병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하고 야칼스드리프(Jakkalsdrif) 수용소 생활로 이어진다. 수용소를 탈출해 다시 돌아온 농장에서 자신이 기른 호박과 멜론을 먹으며 평화롭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지만, 산속 게릴라 소탕 작전의 하나로 농장이 폭파되면서 마이클은 다시 수용소로 끌려가며 1부가 끝난다. 2부의 화자는 마이클이 아니라 수용소 군의관의 1인칭 서사로 전개된다. 지식인 특유의 내면 의식이 답답하게 펼쳐지는 2부에서 군의관의 관점으로 묘사되는 마이클의 모습은 이해 불가능한 ‘돌맹이’와도 같다. 1부는 마이클의 의식을 통해 전개되지만 익명의 3인칭 화자의 서술로 진행됨으로써 마이클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부가 지식인의 자의식으로 가득한 서술이라면 1부의 서사는 마이클의 의식과 몸의 감각적 움직임이 동시에 펼쳐진다. 마이클은 케이프타운을 떠나 수용소와 카루(Karoo) 농장을 거치면서 땅과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호박을 경작하며 도시에서와는 다른 존재가 되어간다.

『마이클 K』의 1부와 2부의 주인공인 마이클과 군의관의 대립은 단순히 계급적, 인종적 위계에 그치지 않는다. 소설의 서사가 주목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 차원의 폭력과 갈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를 두고 김성호는 “군의관의 서사에 뭔가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358)이 가능한 이유는 마이클이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쉽게 만나기 힘든 특이한 형상으로서 실감나게 창조하는 데 성공”(357)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말과 자의식의 세계에 갇혀 사는 군의관은 타자와의 만남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만 정작 그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군의관은 현실 세계에만 머무르는 다수와 다르게 지식인 특유의 자의식에 시달린다. 하위주체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지식인의 자의식을 드러내며 현실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지만, 그가 느끼

는 공허함은 채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내가 그녀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면, 펠리시티(Felicity)는 자신을 시간이라는 주머니, 즉 기다림의 시간, 수용소 시간, 전쟁의 시간 속에 외롭게 버려진 조난자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시간은 이불 빨래를 하고 마루를 닦는 시간조차 늘 그래왔듯이 현재에도 충분하다. 반면, 한 귀로는 수용소 생활에서 일어나는 진부한 이야기들을 듣고 다른 쪽 귀로는 우주의 거대 기획(Grand Design)의 초자연적인 회전 소리를 듣는 나에게 시간은 점점 공허해진다. (혹시 내가 펠리시티를 무시하고 있나?) 심지어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속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는 타박상 환자조차 죽어가면서도 살아있는 나보다 더 강렬하게 살아간다. (158)

군요원은 자신의 관점에서 간호사나 환자 등 주위의 사람들이 별생각 없이 ‘충만하게’ 산다고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무시하는 지식인 특유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그는 하위 계급에 대한 자기의식의 이중성까지도 의식할 정도로 예민하지만 동시에 자기 인식들에 갇혀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마이클에게 보내는 상상의 편지에서 군요원은 “오직 나만이. . . 어떤 식의 분류를 떠나 너를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본다. 기적처럼 규범이나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혼, 딱딱한 석관 안에서 날개를 파다이는 영혼, 바보 같은 가면 뒤에서 중얼거리는 영혼”(151)으로 볼 수 있는 자임을 확신한다. 자기에 대한 이러한 자긍심과 확신은 그가 아무리 많은 타자와 만나더라도 결코 타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이와 관련된 자기 성찰이 불가능할 것임을 암시한다. 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자기의식 속에서만 자신이 누구보다 타자를 잘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요원의 경우는 한마디로 주체의 자기 해석이 얼마나 자기 착각에 지나지 않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농장을 방문했던 산속의 게릴라군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갈까 잠깐 고민하는 마이클은 모두가 전쟁터로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쟁의 와중에도 뒤에 남아 땅을 가꾸는 사람이 필요하고 혹은 적어도 “땅을 가꾼다는 생각”(idea of gardening, 109)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땅을 가꾸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마이클의 생각은 소설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지점이다.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쿿시 소설을 평가하는 고디머(Nadine Gordimer)의 비판을 예견이라도 하듯이,<sup>6)</sup> 마이클은 남아공의 폭력적인 상황과 그럼에도 땅을 경작하기로 선택하는 자신의 결정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바로 이어지는 문단에서 마이클은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기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항상, 그가 뭔가 자기 생각을 자신에게 설명하려 할 때 생각이 막히고 어떤 말도 소용없게 만드는 틈과 구멍과 어둠이 늘 따라다녔다.”(110) 이러한 생각은 주체의 변형 가능성의 측면에서 마이클과 군의관의 차이를 크게 벌린다. 마이클은 자기 생각과 해석이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늘 의심하는 인물이다. 반면, 군의관은 ‘이야기 강박을 지닌 자’(김성호 355)이자 ‘말’의 힘을 믿는 자이다. 마이클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요구하는 군의관은 자기 말의 진실성을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과 군의관의 대립을 “자기 이야기의 ‘구멍’을 의식하는 자와 그 ‘구멍’을 보지 못하는 자 사이의 대립”(356)이라고 표현한 김성호의 지적은 적절해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배브콕(David Babcock)은 2부에서 군의관의 1인칭 형식의 고백 서사가 군의관이 지식인 특유의 특권의식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897). 김성호와 배브콕이 지식인으로서의 군의관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왕은철은 1부와 2부에서 화자와 관점의 변화가 소설의 근본 성격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왕은철은 『마이클 K』가 2부의 군의관의 1인칭 서사로 인해 “타자를 위해서, 타자에 관하여 내러티브를 전개하는 것 같던 소설은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내러티브의 허구성에 관한 자기 반영적인 소설로 변질된다”(160)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1부에서 마이클 K라는 타자에게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보였던 소설이 “쿿시의 다른 소설들과 다를 바 없는 소설”(160)이 되었다는 것이다. 왕은철의 이러한 지적은 쿿시가 타자를 추상화하고 이상화하는 흐름에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환기시킨다. 고디머식의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쿿시는 이러한 이분법의 폐해를 벗어나려 시도한다. 사회적 범주에 기반한 주체-타자의 이분법을 벗어나기 위해 마이클의 출구는 인간 사회로 한정된 역사의 바깥을 향해 열려있다. 마이클이 필사적으로 도시와 수용소를 떠나 무위와 침묵 속에서 땅을 가꿈으로써 자신

만의 '탈출구'를 모색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을 시도하는 마이클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소설에서 마이클의 모습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문명을 일궈 온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보기 힘들다. 자기를 동물, 식물과의 유사성을 넘어서 곤충인 흰개미에 비유하는 대목은 특히 그렇다. 마이클은 자기를 하인처럼 부리려는 피사기의 손자를 피해 들판을 가로질러 산속의 굴에 거처를 정한다. 완전히 고립된 환경에서 마이클은 마치 모든 욕망을 잠재운 수행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째로 마주하게 되었다. 스스로가 마치 거대한 바위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 흰개미 같다고 생각했다. 사는 거 이외에 달리 할 일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새가 날아와서 어깨 위에 앉더라도 놀라지 않을 만큼 조용히 앉아있었다.

(66)

그는 주로 산속의 동굴에서 잠을 자거나 멍한 상태로 있다. 마이클은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행하는 행위들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소설의 삼 분의 일 지점에서 마이클이 “나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67)고 선언하는 것은 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이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텍스트가 드포의 『로빈슨 크루소』이다. 마이클은 소유와 탐욕으로 얼룩진 현대사회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데, 이는 크루소가 지향했을 모든 시도에 대한 저항이자 거리두기이다. 근대 자본주의 인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쿛시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는 이 소설의 ‘다시 쓰기’인 『포우』(Foe 1986)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패러디와 직접적인 언급은 『포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마이클 K』 전체가 『포우』와는 또 다른 방식의 『로빈슨 크루소』의 ‘다시 쓰기’라 할 수 있다. 바이탈(Anthony Vital)은 『마이클 K의 삶과 시대』라는 원제가 『로빈슨 크루소의 삶과 모험』이라는 제목을 패러디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95). 크루소가 제국주의적 ‘모험’의 찬가를 부른다면, 마이클은 남아공의 폭력적인 ‘시대’를 견디고 통과해

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루를 철저히 계획하고 통제하며 사는 크루소와 달리, 마이클은 “주체가 세계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무의도적 의식상태”(Marais 42)를 유지한다. 대상에 대한 의도나 통제 없이 무위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마이클의 의식상태를 머레이스는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그저 있음”(il y a)에 비교해서 설명한다(42-3). 네모(Philippe Nemo)와의 대담에서 레비나스는 “그저 있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면증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 ‘나’가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다. 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주관과는 동떨어진 ‘객체’ 차원이다. 그러한 비인격성이 나의 의식을 빨아들인다. 그리하여 의식이 비인격화된다.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it)가 깨어 있는 것이다”(49).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있음’이 인간 의식 특유의 주도권과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의도한 바대로 이루려는 인간 주체의 행위가 멈춰지는 지점이다. 레비나스의 ‘그저 있음’은 인간의 의식이 로빈슨 크루소의 의식처럼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설명해준다.<sup>7)</sup> 마이클은 대상 세계에 대해 ‘주도권’을 쥐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기 어려운 마이클의 의식상태를 반복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쿿시는 인간이 어떻게 기존의 주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상상해보도록 한다.

군요관이 지극히 현학적이고 현란한 말들을 구사하면서 사회적 가치 체계인 언어에 갇힌 세계에 살고 있다면, 마이클은 점점 입을 닫고 침묵을 택한다. 동시에 마이클은 땅과 다른 생명체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기 몸의 동물적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주로 잠을 자거나 멍한 상태로 있는 마이클은 스스로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개미나 도마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박과 멜론을 기를 때도 마이클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몸의 감각이다. 그는 점점 더 동물처럼 청각, 촉각, 후각에 의지하게 된다. 마이클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면 호박을 돌보러 나온다. 캄캄한 밤에 움직이는 탓에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얼굴의 피부와 눈동자에 느껴지는 어떤 압력”(115)만으로 눈앞에 뭔가가 있음을 느낀다. “지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깨끗하고 향긋한 물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이클은 “비가 언제



내릴지 공기 중의 비 냄새도 맡을 수 있다”(115)고 생각한다. 머레이스는 마이클의 카루 농장을 크루소의 섬과 비교하면서 전자는 “고립되어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땅의 존재가 되는 상태’(the state of being-in-the-earth)를 회복하는 장소”(28)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마이클의 카루 농장과 관계를 특징짓는 ‘땅의 존재가 되는 상태’는 오직 언어의 부재 속에서만 가능하다”(27)고 덧붙인다. 언어가 사회의 모든 가치 체계를 상징하는 기호체계라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는 새로운 역사를 상상하고 실험하는 소설에 걸맞게 마이클이라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주체성을 상상해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인간 사회를 떠나 고립된 삶을 자처하는 마이클은 주위 세계와 전혀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마이클은 자본주의 인간의 원형인 로빈슨 크루소가 했던 방식으로 세계를 탐험하고 “동굴을 집으로 바꾸거나 시간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68)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대신 마이클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자기 사이의 경계를 지우고,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이 자신의 시간과 공간 속에 그저 머문다. 마이클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위(idleness)의 상태에 있지만, 이는 푸코가 말한 “자기로의 전향”(epistrophē eis heauton, 『자기 배려』 85) 혹은 “시선을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동시키는 것”(『주체의 해석학』 53)과 유사하다.

이제 그는 먹고 마시는 모험을 그만두었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굴을 집으로 바꾸거나 하루의 시간을 기록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갑자기 햇빛 한가운데 있게 될 때까지 그를 점점 더 빨리 찾아오는 산 등성이의 그림자를 보고 싶은 거 외에 고대할 일도 없었다. 움직이기엔 너무 피곤하거나 게을러서 굴 입구에 멍하니 앉아있거나 누워있곤 했다. 그러다 오후 내내 잠을 잤다. 그는 자기가 지극한 행복 속에 사는 게 아닌지 의아했다. (68)

푸코가 ‘자기 배려’ 개념을 설명하면서 주로 예를 드는 집단이 견유주의(Cynicism)와 스토아학파(Stoicism)인데, 그중에서도 ‘은퇴·퇴거’(anachoresis)의 개념에 정신적 의의를 부여한 것은 후자이다. 스토아학파에서 퇴거의 예는 “군대의 퇴각,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의 은거, 혹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보여 준 전원으로의 은퇴의 경우와 같이 도시에서 전원으로의 은퇴이다. 전원으로의 은퇴는 자기 내부로의 정신적 은퇴이다”(「자기의 테크놀로지」 62). 푸코는 이러한 ‘은퇴·퇴거’가 주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 행동규범을 기억하기 위해서”(「자기의 테크놀로지」 63) 매일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였다고 설명한다.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카루 농장에서 마이클은 호박을 기르는 이외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저 하릴없이 “산 그림자를 바라보거나” 그러다가 햇볕을 쬐는 게 전부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그로서는 “지극한 행복 속에 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자기 굴을 집으로 바꾸거나 하루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마이클의 말은 소유와 축적을 위한 인간의 노동을 거부하는 것이다. 외부 대상으로만 눈을 돌리는 크루소와 달리 마이클은 ‘자기 내부로의 정신적 은퇴’를 감행하며 “자기 자신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일”(「자기의 테크놀로지」 63)을 최고의 행복으로 꼽는다.

마이클이 외부 대상에게 향하는 관심을 자기 내부로 돌린다고 해서 이것이 균의관의 경우처럼 마음의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개미처럼 ‘명한’ 상태로 하루의 시간을 마주하기 때문에 마이클은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 점점 더 잠을 많이 자거나 무위의 상태로 시간을 보낸다. “그는 점점 더 잠을 많이 잤다. 일이 끝났을 때 더 이상 별을 바라보면서, 밤의 소리를 들으면서 굴 바깥에 앉아있지 않았고 들판을 어슬렁거리지도 않았다. 대신 굴속으로 기어들어가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졌다”(114). 이러한 마이클의 일상은 불안과 공허로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균의관의 의식과는 너무 다르다. 물론 교육 정도를 생각하면 지식인의 자의식과 마이클의 내면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쿣시가 마이클의 내면과 일상을 크루소나 균의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묘사하는 것은 그동안 인간이 추구해왔던 가치들-노동, 성실, 소유-을 해체하는 작업이다. 얼핏 보기에 인간보다 동물 혹은 곤충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마이클의 일상이 의외의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이 소설이 역사의 ‘바깥’을 상상해보게 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크루소가 성실함과 노동을 무기로 세계를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것과 반대로, 마이클은 무위를 통해 인간이 강

고하게 구축했던 세계의 주도권을 해체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면, “반쯤 깨어 있고, 반쯤 잠을 자는”(116) 마이클의 일상은 전통적 의미의 인간 주체성을 해체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이클이 카루 농장에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적 의무와 관계를 거부하는 대신 얻으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인’의 삶이다. 소설의 제사(epigraph)에서 쿛시는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의 말을 인용하여 ‘자유’가 소설의 키워드임을 암시한다. “전쟁은 모두의 아버지이며 모두의 왕이다/ 전쟁은 어떤 이를 신으로, 또 다른 이는 인간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어떤 이는 노예로, 또 다른 이는 자유인으로 만든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문장은 조화와 질서가 아니라 전쟁과 갈등이 인간 문명의 상수임을 천명한다. 인간은 그 폭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인물인지 드러내게 된다. 쿛시가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소설의 제사로 삼은 이유는 마이클의 자유를 향한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버나드(Rita Barnard)는 마이클이 땅과 맺는 관계가 남아프리카의 낭만적인 전원문학의 공식을 ‘다시 쓰기’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마이클의 전략이 어떻게 자유와 연결되는지 설명한다. 즉 마이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조건을 “땅을 소유하지 않고 땅을 가꿈으로써” 그리고 언어와 이야기대신 침묵을 택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간다(53). 마이클은 “자신의 뿌리뽑힘 상태, 비가시성, 흔적 지우기를 자유의 형식”(53)으로 바꾸어낸다는 점에서 놀라운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이클이 스스로 자신의 ‘탈출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동시에 수행으로서의 자유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이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치를 자신만의 전략을 통해 새로운 권력 게임으로 전환한다.

자유인으로서 마이클의 모습은 ‘무위’(idleness)를 ‘자유’로 전환하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잠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마이클에게 자유로서의 무위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노동을 하다가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얻는 무엇이 아니라, “자신을 시간의 흐름에 온전히 내맡기는 것”(115)이다. 이는 인간 의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크루소의 내면과 같은 의식이 사라진 ‘그저 있음’(il y a)의 상태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러한 ‘무위’의 상태가 왜 ‘자유’와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때의 자

유는 사회체제로 인해 억압된 인간이 해방되었다고 느끼는 전통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마이클이 누리는 자유는 기생충이나 도마뱀처럼 생각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축복처럼 잊혀진 어느 구석에서”(116) 역사의 시간이 거의 미치지 않는 채로 사는 마이클은 “창자 속에서 즐기고 있는 기생충처럼 혹은 돌 아래서 즐기고 있는 도마뱀처럼”(116)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상태를 ‘지극한 행복’이라 느끼는 마이클에게 ‘자유’의 형식으로서의 자유’는, 푸코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통치받지 않을 자유’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적 의미의 성실과 노동을 해체하는 매우 유용한 전술이자 전략이 되는 셈이다.

푸코가 말하는 ‘자유’의 수행’은 ‘자기 배려’와 거의 동의어라 할 수 있다. 주체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들을 매 순간 실천하려는 노력은 불교에서의 ‘수행’과 다르지 않다. 마이클의 존재 변화는 의식이나 정신의 차원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다. 마이클이 자기 몸 하나로 고군분투하는 현실은 소설에서 자주 묘사되는 배고픔으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점점 말을 잃어간다. 현대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과 시각을 차단하면서 마이클은 점점 동물적인 감각을 키우고 인간보다 동물이나 곤충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간다. 드래규노와(Dana Dragunoiu)는 마이클이 시체처럼 마른 것이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위한 무지막지한 사투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말한다(71). 마이클의 정신과 의지는 사회적 요구에 굴복하고 타협할 수도 있지만, 그의 몸은 끝까지 타협을 거부한다. 그 결과가 마이클의 뼈만 남은 몸이다. 마이클의 마른 몸이 상징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임무를 넘어서는 형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설적인 것은 마이클의 몸이 여월수록 그의 영혼은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수용소와 카루 농장을 오가는 마이클의 여정이 말해주듯이, 인간인 한 마이클도 사회를 완전히 떠날 수 없고 생명체인 한에서는 자기 몸을 떠날 수도 없다. 『마이클 K의 삶과 시대』라는 소설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마이클의 특이한 삶은 폭력적인 남아공의 현실이라는 지평을 완전히 떠날 수 없다. 그래서 평범한 도시인

에서 자유인으로 자신을 변형시켜가는 마이클의 여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남아공의 폭력적인 현실이라는 지평 때문에 더 의미있는 시도로 다가온다.

## 4. 나가며

마이클 K라는 인물은 사회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떠나려고 무모할 정도의 시도를 하는 극단적인 인물이다. 그의 언행과 생각은 사회적 기준에서 보자면 어리석고 대책이 없다. 그의 어리석음은 그러나 사회적 기준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로넬(Avital Ronell)이 주장하듯이 지식과 어리석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얼핏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식인보다 훨씬 지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은 소설에서 지식인인 군의관과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마이클의 관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지혜와 우매함은 상충하기보다는 뒤섞여 존재한다(R ten Bos 147). 이 둘이 나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순함이 오히려 어리석음에 가깝다. 마이클의 어리석음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들뢰즈적 의미에서 매우 철학적이기도 하다. 들뢰즈는 좋은 철학이란 '분별'과 '상식'에 가장 가까운 고대 그리스 단어인 '상식적 의견'(doxa)과 분명하게 자신을 반대편에 위치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철학은 말 그대로 '역설적'이다(R. ten Bos 144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사회적 '분별'과 '상식'을 거스르는 마이클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철학이 마땅히 구현해야 할 길과도 통함을 알 수 있다. 삶에 대한 마이클의 태도는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역설적'이다. 전소영은 그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사회적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체제나 언어로도 제한될 수 없는 자신만의 존재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의 적극적인 의지 때문"(161)이라고 말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마이클은 땅을 경작함으로써 황무지를 개간하기보다 "그 반대로 자연과 일치되는 완전한 자기소멸"(전소영 161)을 꿈꾼다. 여기서 '자기소멸'이란 표현은 그냥 사라진다는 의미라기보다 자기를 비움으로써 확실하게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역설적이다. 이러한 주체의 자기소멸이야말로

주체와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비로소 가능하게 한다.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주체의 자기소멸이야말로, 제한적 의미에서나마, 탐욕과 통제의 욕망으로 가득 찬 크루소의 주체성을 해체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마이클 K』에서 마이클의 삶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풍요와 빈곤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방식이고, 그러한 새로움으로 자신을 변형시키는 ‘자기 배려’의 행위들을 마이클이 어떻게 실천해가는지 보여준다. 『마이클 K』만큼 근대이후 인간의 역사가 추구해온 가치와 그것을 통해 공고해진 인간의 주체성을 실험적이라고 할 만큼 뒤집어 보고 해체하는 작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푸코의 ‘자기 배려’ 개념은 마이클처럼 반사회적이고 비현실적인 인물을 통해 소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이해하는 데 유효하다. 중요한 것은 주체의 구체적인 실천행위이고 그것을 통한 윤리적 실천이다. 주체의 자기변형 없이는 타자와의 만남이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정의’를 가장 크게 외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타자’로 모든 논의를 환원하는 담론 또한 의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K』는 ‘타자’에 치우친 담론이 의외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균의관의 현란한 말을 통해 끊임없이 환기한다. 푸코의 ‘자기 배려’ 개념은 그런 면에서 쿣시가 왜 타자를 주인공으로 삼는 일에 그토록 경계하고 의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Notes

- 1) 푸코는 ‘자기’(heautou)와 ‘배려’(epimeleia)를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기라는 것은 ‘윤리를 특징짓는 다양한 실천과 기술 등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다. 자기는 실체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가 맺는 관계들의 총체이다. . . 그러므로 문제는 자기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종류의 자기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궁리하는 것이다”(『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 수양』 33-4). 반면, “epimeleia는 ‘작업을 가하다,’ ‘돌보다’를 의미하는 매우 강도 높은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 . 자기 자신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나 주의보다도 자기테크닉, 혹은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작업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 수양』 183 -84).
- 2) 푸코는 1975년에 『감시와 처벌』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1976년 12월에 『성의 역사』 제 1권인 『삶의 의지』를 출간했다. 이후 8년이 지난 1984년 5월에 『성의 역사』 제 2권인 『쾌락의 활용』을 출간했고, 6월 20일에 제 3권인 『자기 배려』를 병상에서 받아보고 5일 뒤에 사망한다. 푸코의 권력 개념은 초기의 규율 권력에서 생명 권력으로 다시 통치성

연구로 전환한다. 특히 후기에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neoliberal governmentality) 연구에서 최종적으로는 “자아의 윤리”(the ethics of the self)에 초점을 맞춘다. “자아의 윤리”는 크게 ‘자기 수양’(self-cultivation)과 ‘자기 배려’(self-care)의 문제로 나뉜다. 푸코의 권력 개념의 변화는 김용규의 논문 참조.

- 3) 2001년 8월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기사에서 베르 르데케르(Robert Redeker)의 해석은 ‘자기 배려’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주의의 철학적 수양에서 기독교의 금욕주의에 이르기까지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푸코가 『주체의 해석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철학적 요구와 영적인 요구가 내내 연결되어 있었다. 주체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영성은 주체가 진리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 변화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었다. ‘자기 배려’의 요구는 바로 철학의 이러한 영적인 성격의 표현이다. 데카르트는 철학에서 이러한 ‘자기 배려’에 중지부를 찍고, 그와 동시에 근대성의 문을 열게 된다. 『방법 서설』 이후로 사람들은, 주체는 그 본성상 아무런 예비적인 자아의 변화가 없이도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데카르트가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서 몰아내 버린 것은 바로 ‘자기 배려’라는 개념으로 요약되는 주체의 변화라는 전통적인 영적 요구였던 것이다.” (『자기 배려』 11에서 재인용)
- 4) 푸코의 ‘자기 배려’의 3가지 형태를 갈로(Silvio Gallo)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플라톤적 의미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통치하기 위해 자기를 수양하는 자기 배려가 있다. 둘째, 구원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적 맥락에서 자기 배려는 자기를 극복하는 금욕적인 방식이다. 셋째,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에 견유학과와 스토아학과에서 특히 발달한 것으로 자기 배려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경우이다(696). 데카르트 이후에 ‘자기 배려’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자기 인식’(the knowledge of the self, 696)의 문제로 대체되어 사라진다.
- 5) 영역본을 이용하여 한글 번역을 일부 수정했음.
- 6) 고디머는 「땅을 가꾼다는 생각」 (“The Idea of Gardening,” 1984)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콧시의 소설을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강하게 비판한다. 고디머는 폭력과 부정의가 난무하는 남아공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땅을 살리는 것을 유일한 구원”(403)으로 제시하는 마이클 K의 비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7) 『윤리와 무한』을 번역한 양명수는 ‘그저 있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체, 인격성, 의미는 같이 간다. 비주체, 비인격성(비인칭 il) 무의미는 같이 간다. 데카르트 이후 근대 철학의 노력은 의미를 찾아 주체를 세우려는 것이었다. il y a는 그 이전이다. 창조 이전에 il y a가 있다.”(58-9)

## 인 용 문 헌

- 김성호. 「역사를 실험하다: 쿤트의 『마이클 K의 삶과 시대』에 나타난 노동 그리고 서사의 정치」. 『안과밖』, 35호, 2013, 332-383쪽.
- 김용규. 「미셸 푸코의 권력모델의 변화와 비판의 의미: 전쟁에서 통치성으로」. 『대동철학』, 85집, 2018, 190-222쪽.
- 로넬, 아비탈. 『어리석음』. 강우성 역, 문학동네, 2007.
- 왕은철. 「나딘 고디머의 눈으로 본 J. M. 쿤트의 소설—『마이클 K』에 나타난 원심력과 구심력에 관하여」. 『영어영문학21』, 27권 4호, 2014, 141-170쪽.
- 전소영. 「잠재적 감정으로서의 아파테이아: 쿤트의 『마이클 K의 삶과 시대』」. 『현대영미소설』, 18권 1호, 2011, 147-167쪽.
- 카프카, 프란츠. 『변신·선고 외』. 김태환 역. 을유문화사. 2005.
- 푸코, 미셸.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 수양』. 오트르망, 심세광, 전해리 역. 동녘, 2016.
- \_\_\_\_\_.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희원 역, 동문선. 1997.
- \_\_\_\_\_.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동문선, 2007.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lated by Naniel Heller-Roazen, Stanford UP, 1995.
- Babcock, David. “Professional Subjectivity and the Attenuation of Character in J. M. Coetzee’s *Life & Times of Michael K*.” *PMLA*, vol. 127, no. 4, 2012, pp. 890-904.
- Barnard, Rita. “Dream Topographies: J. M. Coetzee and the South African Pastoral.” *South Atlantic Quarterly*, vol. 93, no. 1, 1994, pp. 33-59.
- Coetzee, J. M. *Life and Times of Michael K*. 1983. Vintage Books, 2004.
- \_\_\_\_\_. *White Writing: on the Culture of Letters in South Africa*. Yale UP, 1988.
- Defoe, Daniel. *Robinson Crusoe*. 1719. Edited by Thomas Keymer, Oxford UP, 2007.



- Dragunoiu, Dana. "J. M. Coetzee's *Michael K* and the Thin Theory of the Good." *The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vol. 41, no. 1, 2006, pp. 69-92.
- Eagleton, Terry. *After Theory*. Basic Books, 2003.
- Foucault, Michell. *The Care of the Self.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3*. Translated by Robert Hurley, Vintage Books, 1988.
- \_\_\_\_\_. "The Ethics of the Care of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The Final Foucault*, The MIT Press, 1988, pp. 1-20.
- \_\_\_\_\_. *The Hermeneutics of the Subject*. Translated by Graham Burchell, Palgrave Macmillan, 2001.
- Gallo, Silvio. "The Care of the Self and Biopolitics: Resistance and Practices of Freedom."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 49, no. 7, 2017, pp. 691-701.
- Gordimer, Nadine. "The Idea of Gardening." *Telling Times: Writing and Living, 1954-2008*, W. W. Norton & Company, 2010, pp. 396-403.
- Levinas, Emmanuel. *Ethics and Infinity*. Translated by Richard Cohen, Duquesne UP, 1985. [레비나스, 에마누엘. 『윤리와 무한』. 양명수 역, 다산글방, 2000]
- Marais, Mike. "'One of those islands without an owner': The Aesthetics of Space in *Robinson Crusoe* and J. M. Coetzee's *Michael K*." *Current Writing*, vol. 8, no. 1, 1996, pp. 19-32.
- \_\_\_\_\_. *Secretary of the Invisible: The Idea of Hospitality in the fiction of J. M. Coetzee*. Rodopi, 2009.
- Mitchell, Erin. "Towards the Garden of the Mothers: Relocating the Capacity to Narrate in *Michael K*." *Theoria*, vol. 91, 1998, pp. 87-101.
- Ten Bos, Rene. "The Vitality of Stupidity." *Social Epistemology*, vol. 12, no. 2, 2007, pp. 139-50.
- Vital, Anthony. "Toward an African Ecocriticism: Postcolonialism, Ecology and *Life*

& *Times of Michael K.*”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vol. 39, no. 1, 2008, pp. 87-106.

Wright, Derek. “Black Earth, White Myth: Coetzee’s *Michael K.*” *Modern Fiction Studies*, vol. 38, no. 2, 1992, pp. 435-44.

## Abstract

### Reading Coetzee's *Life & Times of Michael K* through Michel Foucault's concept of 'the care of the self'

Eunyoung O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ttempts to read J. M. Coetzee's *Life & Times of Michael K* through Michel Foucault's concept of 'the care of the self'. To put it briefly, no subject is capable of truth only by the Socratic self-knowledge, expressed in the famous phrase 'know yourself.' In ancient Greek philosophy, the Socratic self-knowledge was just part of the theme of the self-care. According to Foucault, to be able to have access to the truth, a subject must be "changed, transformed, shifted, and become, to some extent and up to a certain point, other than himself"(Foucault 15). Foucault genealogically explores the reason why the notion of self-care has disappeared while self-knowledge has gained some privileged status in the Western philosophy. The care of the self enables us to see how "the cult of the Other"(Eagleton 21), permeating postmodern theories of the late 20th-century, is related to the phenomenon of the disappearing subject in modern discourses.

Both Foucault's concept and Coetzee's *Michael K* pay attention to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s becoming other than oneself. Michael K transforms himself in his struggles to survive, whereas the medical doctor, the narrator of the second part, is trapped in his exaggerated self-consciousness. Going through hunger and gardening, Michael becomes "a different kind of man" from an ordinary city dweller of Cape Town. This change becomes possible in the process of deconstructing his old

subjectivity through silence, gardening, and idleness as practices of freedom. This paper focuses on how Michael transforms himself and what his self-transformation signifies in an ethical sense.

**Key Words:** *Life & Times of Michael K*, Foucault's 'the care of the self,' practices of freedom, the subject's self transformation, idleness

논문접수일: 2023.09.24

심사완료일: 2023.10.12

게재확정일: 2023.10.17

이름: 오은영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이메일: young\_oh@naver.com